

김대중센터 제2전시장 건립 가속도

광주시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의 시설확장을 위해 제2전시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제2전시장 부지는 현재 센터 건너편 제1주차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광주노인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광주시로 돌려주는 출자 반환 의결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주차장 부지에 추진하던 광주노인회관은 2주차장 부지에 들어서게 됐다.

그동안 1주차장내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현재 DJ센터 2전시장 건립 후

2021년 개관 목표... 오늘 시장 주재 현안회의 신축 부지는 현 센터 맞은편 '제1주차장' 유력

보지로 3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제1안은 DJ센터 앞 1주차장(1만8천932㎡)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저 비용에 최단시일 착공이 가능하지만, 부지가 좁아 효율적 건물 설계의 어려움이 단점이다.

제2안은 1주차장에 추가부지를 포함(2만7천㎡)하는 방안으로 충분한 전시면적이 가능하지만, 추가부지 매입 비용(200억원)과 토지수용에 장기간 소요된

다.

제3안은 상무골프연습장(3만4천647㎡)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지 활용도가 높고 상무 도심권 도로 10분 거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5·18자유공원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데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고, 5·18 관련 단체의 반대도 우려된다.

2전시장 선정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1안 600억원, 2안 1천억원, 3안 800억원 등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2전시장 부지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과 예산을 최우선해 고려하는 만큼 1주차장이 가장 유력하다.

제2전시장은 전체 1만8천~3만㎡의 면적에 8천~1만㎡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10개,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는 21일 이용섭 시장 주재로 2전시장 건립부지 선정 현안회의를 열고 후보지적합여부를 논의한 뒤, 조만간 2전시장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전시산업 발전위 심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 반영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에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목포신항 자동차부두·대체진입로 신설

2023년 완공... 연간 26억여원 경제적 편익 기대

해양수산부는 20일 목포신항에 수출차량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를 오는 2023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신항에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수출 차량을 연 31만대 규모(2018년 기준)로 처리하고 있고, 한적 차량 처리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출용과 환적용 자동차부두가 750m 거리를 두고 각각 따로 운영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 일원화를 위한 전용부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목포신항 진입도로는 삼호중공업 진출입도로와 인근 주민의 생활도로 등 한꺼번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대체 진입도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12월 목포신항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 건설 계획을 반영·고시했다. /세종=김민수 기자 mskim@

기본계획에서 해수부는 목포신항에 길이 300m, 5만급 1선석으로 이뤄진 자동차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을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체 진입도로는 1.8km 구간에 4차로로 건설하며 올해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 2023년에는 개통하기로 했다.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 건설에는 각각 예산 472억원, 337억원이 투입된다.

목포신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건립되면 연간 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또 대체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과 물류운송비, 교통사고 감소 등을 감안하면 연간 21억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로 건설하는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가 목포항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수 기자 mskim@



20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 '광주상생카드' 출시 기념식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교육감 등 주요 내빈들이 카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경숙 기자 gskang@

지역경제 후원군 '광주상생카드' 출시

체크카드·정액카드 2종... 소상공인 수수료 전액 지원

광주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광주상생카드'를 20일 공식 출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이

용섭 시장과 김동찬 시의회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소상공인·상인연합회, 경제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상생카드'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 관련단체 등 58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수당 등 활용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 소속 임직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기념사에서 "광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광주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오늘 출시되는 광주상생카드는 시민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상인연합회 손중호 회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면서 "지역소상공인으로서 광주상생카드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 공항버스 1000번 운행재개 불투명

市-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중인 광주 '1000번' 공항버스의 운행재개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버스 운영업체 측은 보조금 지원을 광주시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광주 공항버스 운영업체인 '광주관광'에 따르면 올해 초 휴업 이후 수차례 만나 공항버스의 운행재개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은 "2년 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운송수입이 감소해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광주시가 유류 보조금으로 월 3천만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 2002년 1월 인허가 조건에 '손실보상금 미지급'이 명기된

만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요금을 현재 좌석버스 수준(1천700원)으로 인상하거나 무료환승 적용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관광은 오는 6월 30일까지 휴업을 이어가면서 광주시에 지원금 지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또 요금인상·노선조정·환승제도 도입 등을 실시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폐업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공항버스 운전기사 20여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다. 광주관광이 꾸준한 적자에도 공항버스를 운영을 이어가려고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자리 잡고 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24시 콧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